

LG아트센터 기획공연 시즌 CoMPAS11

LG ARTS CENTER CoMPAS11

DANCE

카롤린 칼슨 안무 (블루 레이디)
Carolyn Carlson 'Blue Lady' [revisited]
6.9(Thu)-10(Fri)

아크람 칸 컴퍼니 (버티칼 로즈)
Akram Khan Company 'Vertical Rose'
9.30(Fri)-10.1(Sat)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Ballet Nacional de España
10.8(Thu)-9(Sun)

THEATRE

사채형 연출 신개념 음악극
New Production by Jae-Hyung SEO
4.26(Tue)-5.1(Sun)

루마니아, 기보 톨파 연출 (리차드 3세)
Hungarian Theatre of Cluj 'Richard III'
Directed by Gabor Tompa
9.26(Thu)-28(Sat)

이지람의 판소리 보채하트 (역학가)
LEE Joram, Pansori Brecht 'Ukchuk-ga'
6.14(Tue)-15(Wed), 17(Fri)-19(Sun)

바람꽃의 음악극 (역주)
Baramgok, Music Theatre 'Kokkur'
10.20(Thu)-10.22(Sat)

아이슬란드, 기술러 가다르손 연출
Iceland 'Vesurpof Theatre'
Acrobatic 'Fausa'
Directed by Gísli Gardarsson
10.27(Thu)-30(Sun)

일본, 니시가와 유카오 연출
세익스피어 최
(안토니오 & 클레오파트라)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
Directed by Yukio Ninagawa
11.24(Thu)-27(Sun)

JAZZ & WORLD MUSIC

안젤리크 키도조
Angelique Kidjo
3.13(Sun)

나윤선
Youn Sun Nah
3.23(Wed)

질베르토 질 '스트링 콘서트'
Gilberto Gil 'The String Concert'
4.19(Thu)

CLASSICAL MUSIC

힐라이어드 앙상블 / 하이더 괴벨스 작곡, 연출
<I went to the house, but did not enter>
The Hilliard Ensemble
Composed & directed by Heiner Goebbels
3.28(Sat)-27(Sun)

콜린 커리 & 호칸 하르덴베르거 듀오
Colin Currie & Håkan Hardenberger
4.17(Sun)

마사키 스즈키 & 바흐 솔리스텐 서울
J. S. Bach '5단조 미사'
Masaki Suzuki leads Bachsolisten Seoul
J. S. Bach 'Mass in b minor'
6.8(Sun)

벨기에 고음악 앙상블, 뮌 가르델리스
Il Gardellino
10.2(Sun)

에우로파 갈란테 & 이안 보스트리지
Eurona Galante & Ian Bostridge
11.4(Fri)

양성현의 트리오, 오웬
Trio Owen
11.6(Sun)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11

LG아트센터 기획공연 시즌 브랜드

CoMPAS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LG아트센터가 엄선한 우리 시대 최고의 공연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Contents

- | | |
|--|---|
| 01 할인 안내 | 18 마사아키 스즈키 & 바흐 솔리스텐 서울
J. S. 바흐 '5단조 미사'
Masaaki Suzuki leads Bachsolisten Seoul |
| 02 장르별 공연 라인업 | 20 카롤린 칼송 안무 <블루 레이디>
Carolyn Carlson 'Blue Lady' [revisited] |
| 04 안젤리크 키드조
Angelique Kidjo | 24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억척가>
LEE Jaram, Pansori Brecht 'Ukchuk-ga' |
| 06 나윤선
Youn Sun NAH | 26 아크람 칸 컴퍼니 <버티컬 로드>
Akram Khan Company 'Vertical Road' |
| 08 힐리어드 앙상블 / 하이너 괴벨스 작곡, 연출
<I went to the house, but did not enter>
The Hilliard Ensemble
Composed & directed by Heiner Goebbels | 28 일 가르델리노
Il Gardellino |
| 10 콜린 커리 & 호칸 하르텐베리에르 듀오
Colin Currie & Håkan Hardenberger | 30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Ballet Nacional de España |
| 12 길베르토 질 '스트링 콘서트'
Gilberto Gil 'The String Concert' | 32 바람꽃의 음악극 <꼭두>
Baramgot, Music Theatre 'Kokdu' |
| 14 서재형 연출, 신개념 음악극
New Production by SEO Jae-Hyung | |
| 16 루마니아, 가보 톨파 연출 <리처드 3세>
Hungarian Theatre of Cluj 'Richard III' | |

- | | |
|---|--|
| 34 아이슬란드, 기술리 가다르손 연출
아크로바틱 <파우스트>
Iceland Vesturport Theatre
Acrobatic 'Faust' | 36 에우로파 갈란테 & 이안 보스트리지
Europa Galante & Ian Bostridge |
| 38 양성원의 트리오 오웬
Trio Owon | 40 일본,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 /
셰익스피어 작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 |
| 42 LG아트센터 회원 안내 | 43 제휴 레스토랑 안내 |

LG아트센터 기획공연 시즌 CoMPAS11

패키지 티켓 오픈:
2011.1.4(화) 9am

개별 티켓 오픈:
2011.1.11(화) 9am

LG아트센터 기획공연을 더 경제적으로 즐기는 방법!

01.

CoMPAS 패키지

좋은 공연을 경제적으로 보는 습관,
CoMPAS 패키지
LG아트센터의 2011년 기획공연을
가장 좋은 좌석에서, 가장 저렴하게 보는 방법은
역시, CoMPAS 패키지입니다.
* 자유패키지 10개 이상 구매 고객께는 첫 공연 관람 시
'프로그램 바인더' 교환권을 드립니다.

02.

조기예매 할인

2011년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개별공연 구매 시
10% 조기예매 할인을 드립니다.

03.

학생 할인

- 2011년 전 기획공연에 대해 20% 학생할인을 제공합니다.
- * 단, 아크로바틱 <파우스트>의 학생 할인석은 35,000원(37% 할인가)입니다.
- 초/중/고/대학/대학원생 본인 관람 1매에 한하여, 회당 100매 한정 판매합니다.
- 등급 구분 없이 구매할 수 있으나, 학생 할인석 매진 시 정상가격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티켓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 시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미 구입한 티켓에 한해서는 학생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LG아트센터 - 신한 제휴카드 할인

LG아트센터 - 신한 빅플러스 GS칼텍스 카드, LG아트센터 - 신한 레이디 카드로 결제하시면 결제금액의 10%가 추가 할인됩니다. 카드 가입 및 자세한 서비스 내용 확인은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및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LASSICAL MUSIC

힐리어드 앙상블 / 하이너 괴벨스 작곡, 연출

<I went to the house, but did not enter>

The Hilliard Ensemble

Composed & directed by Heiner Goebbels

3.26(Sat)-27(Sun) 7pm

R 90,000 / S 70,000 / A 50,000 / B 30,000

콜린 커리 & 호칸 하르덴베리에르 듀오

Colin Currie & Håkan Hardenberger

4.17(Sun) 7pm

R 70,000 / S 50,000 / A 30,000

마사아키 스즈키 &

바흐 솔리스트엔 서울

J. S. Bach 'b단조 미사'

Masaaki Suzuki leads

Bachsolisten Seoul

J. S. Bach 'Mass in b minor'

6.5(Sun) 7pm

R 80,000 / S 60,000 / A 40,000 / B 20,000

일 가르델리노

Il Gardellino

10.2(Sun) 7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에우로파 갈란테 & 이안 보스트리지

Europa Galante & Ian Bostridge

11.4(Fri) 8pm

R 90,000 / S 70,000 / A 50,000 / B 30,000

양성원의 트리오 오원

Trio Owon

11.6(Sun) 6pm

R 60,000 / S 50,000 / A 30,000

JAZZ & WORLD MUSIC

안젤리크 키드조

Angelique Kidjo

3.13(Sun) 6pm

R 70,000 / S 50,000 / A 30,000

나윤선

Youn Sun NAH

3.23(Wed) 8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질베르토 질 '스트링 콘서트'

Gilberto Gil 'The String Concert'

4.19(Tue) 8pm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THEATRE

서재형 연출, 신개념 음악극

New Production by SEO Jae-Hyung

4.26(Tue)-5.1(Sun) Weekdays 8pm / Weekend 3pm & 7pm

All seats 40,000

가보 톰파 연출 <리처드 3세>

Hungarian Theatre of Cluj 'Richard III'

Directed by Gábor Tompa

5.26(Thu)-28(Sat) Weekdays 8pm / Sat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억척가>

LEE Jaram, Pansori Brecht 'Ukchuk-ga'

6.14(Tue)-15(Wed), 17(Fri)-19(Sun)

Weekdays 8pm / Weekend 5pm

All seats 40,000

바람꽃의 음악극 <꼭두>

Baramgot, Music Theatre 'Kokdu'

10.20(Thu)-22(Sat)

Weekdays 8pm / Sat 4pm

All seats 40,000

가슬리 가다르손 연출

아크로바틱 <파우스트>

Iceland Vesturport Theatre

Acrobatic 'Faust'

Directed by Gisli Garðarsson

10.27(Thu)-30(Sun)

Weekdays 8pm / Sat 3pm & 7pm / Sun 4pm

All seats 55,000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 / 셰익스피어 작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

Directed by Yukio Ninagawa

11.24(Thu)-27(Sun)

Weekdays 7:30pm / Sat 1:30pm & 7:30pm / Sun 3pm

R 70,000 / S 50,000 / A 30,000

DANCE

카롤린 칼송 안무 <블루 레이디>

Carolyn Carlson

'Blue Lady' [revisited]

6.9(Thu)-10(Fri) 8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아크람 칸 컴퍼니 <버티컬 로드>

Akram Khan Company 'Vertical Road'

9.30(Fri)-10.1(Sat) Fri 8pm / Sat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Ballet Nacional de España

10.6(Thu)-9(Sun)

Weekdays 8pm / Sat 7pm / Sun 4pm

VIP 100,000 / R 80,000 / S 60,000 /

A 40,000



© Nabil Elderkin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러나 아무리 넓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좋은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나는 음악은 춤추게 한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월드 뮤직 스타, 안젤리크 키드조가 온다.

국내에선 다소 낯선 이름의 키드조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베냉(Benin)을 전세계에 알린 아티스트로 유명하다. 알앤비, 펑크, 재즈, 미국 팝음악과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적 특징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3장의 앨범이 연속적으로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된 데 이어, 2008년 <Djin Djin> 앨범으로 마침내 그래미상 최고 월드뮤직 앨범상(Best Contemporary World Music Album)을 수상한 그녀는, 현재 월드뮤직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작곡가 겸 보컬리스트이다. 안젤리크 키드조는 6세에 어머니의 연극 작품에서 데뷔 무대를 치른 후, 20세까지 프로페셔널 가수로서 고국 베냉에서 활동했다. 1983년 파리로 이주, 명문 재즈 스쿨인 C.I.M.에서 수학한 후에 셀 수 없이 많은 라이브 무대에 오르며 지명도를 쌓기 시작한 키드조는 90년대에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월드 뮤직 스타로 자리를 굳건히 하였다. 피터 가브리엘, 카를로스 산타나, 브랜포드 마살리스, 보노(U2), 질베르토 질 등 수많은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경계와 장르, 민족성을 뛰어넘는 '세계 음악의 연결 고리'를 찾는 그녀는 월드 뮤직의 미래를 제시하는 진보적 아티스트로 불리기도 한다. 세자리아 에보라와 같은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노래부터 신나고 경쾌한 댄스 음악까지, 중횡무진 무대 좌우를 누비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카리스마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단번에 사로잡을, 그녀의 공연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

KIDJO ANGELIQUE

3.13(SUN) 6PM

뜨거운 열정으로 삶의 환희를 노래하는 월드 뮤직 디바

안젤리크 키드조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Born in Benin (West Africa), Angelique Kidjo is a Grammy award-winning artist deemed 'Africa's premier diva' by Time Magazine. She is truly one of Africa's most powerful and charismatic stars, mixing driving dance rhythms, passionate political lyrics and her own extraordinary stage presence. Kidjo's internationally acclaimed repertoire includes collaborations with various artists such as Carlos Santana, Peter Gabriel, Alicia Keys, Branford Marsalis, Gilberto Gil and many more. The house will be filled with her supercharged voice, irresistible energy and joyful dance.



무대 위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강렬한 보이스로 단번에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THE VILLAGE VOICE



© Sung Yul NAH

재즈, 프랑스 샹송, 한국 민요 등 다양한 스타일을 넘나드는 기량과 매력적인 목소리로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나윤선. 그녀의 음악은 하나의 장르나 문화적 카테고리 안에 가두기 어려운 넓은 스펙트럼과 깊이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그녀는 '베사메우초', 우리 가요 '초우', 메탈리카의 대표곡 'Enter Sandman', 미국 포크뮤직의 거장인 Jackson C. Frank의 'My name is Carnival' 그리고 '강원도 아리랑'까지 다양한 명곡들을 중후무진 탐색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해석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현재 나윤선은 서구 중심의 재즈계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 아이콘으로서 정상적 위치에 서 있다. 최근 음반 <Same Girl>을 통해 동양인 최초로 French Jazz Charts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Musique FNAC Jazz Charts의 Top 5가 모두 나윤선의 <Same Girl> 수록곡으로 채워졌다. 저명한 재즈 매거진인 'Jazzman'은 2008년 음반 <Voyage>에 이어, 다시 한번 나윤선의 앨범 <Same Girl>을 CHOC(최고 앨범)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즈 옛 링컨 센터',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 핀란드 '국제 포리 재즈 페스티벌' 등 세계의 주요 재즈 이벤트로부터 러브 콜을 받고 있다. 프랑스 레제코(Les Echos)誌에서는 '현재 최고의 재즈 싱어는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온 나윤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대륙과 음악의 국경을 넘어 전세계의 관객과 만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재즈 아티스트 나윤선, 한층 더 성숙하고 다채로운 음악으로 5년 만에 LG아트센터 무대로 돌아오는 그녀의 열정과 감성 가득한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나보자.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JAZZ & WORLD MUSIC — 3.23(수) 8PM

YOUN SUN NAH

유럽 정상의 재즈 보컬로 돌아온 그녀
나윤선

3.23(WED) 8PM

놀랍대! 한국의 나윤선이 노래할 때 모든 음들이 스스로 스윙하고 있었다. 목소리의 기적으로 이룬 대단한 예술!
THE VOGUE, Germany



© Sung Yul NAH

Youn Sun NAH is well regarded for her magnificent voice and passionate originality. The latest album, "Same Girl" has sat on the #1 spot of the French Jazz Charts for four weeks and has received the CHOC award from Jazzman, a renowned jazz magazine in France. As Les Echos proclaimed her 'the greatest jazz singer of today', Youn Sun NAH is now a leading jazz artist in the international jazz scene. She comes back to LG Arts Center in five years. Enjoy her fascinating music full of emotions and passion!

송고한 목소리, 비범한 무대

힐리어드 앙상블 / 하이너 괴벨스 작곡, 연출 음악극 <I went to the house, but did not enter>

R 90,000 WON
S 70,000 WON
A 50,000 WON
B 30,000 WON

출연: 힐리어드 앙상블
작곡/연출: 하이너 괴벨스
제작: 스위스 로잔느 비디 극장
* 이 작품의 아시아 초연은 2011
통영국제음악제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 공연시간: 1시간 45분 / 휴식 없음
Duration: 1hr 45mins with no interval

THE HILLIARD ENSEMBLE

COMPOSED & DIRECTED BY HEINER GOEBBELS I WENT TO THE HOUSE, BUT DID NOT ENTER

3.26(SAT)-27(SUN) 7PM

중세와 현대에 집중하는 특색있는 레퍼토리를 송고한 목소리와 정제된 음악성으로 선보이며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영국의 아 카펠라 4인방 힐리어드 앙상블(The Hilliard Ensemble)이 이번에는 유럽 최고의 음악극 거장으로 명성이 높은 독일의 작곡가 겸 연출가 하이너 괴벨스(Heiner Goebbels)와 만났다.

<I went to the house, but did not enter>

제목부터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들의 음악극은 하이너 괴벨스가 고른 20세기 세 문호의 시를 바탕으로 한다. 20세기 위기에 처한 인간성의 단면을 그린 T.S. 엘리엇의 <J 알프레드 프루프록의 연가>, 모리스 블랑쇼의 <낮의 광기> 그리고 사무엘 베케트의 <Worstward Ho>를

바탕으로 한 이 음악극은 파편화된 이름없는 '나()'가 뚜렷한 캐릭터 없이 희미하게 무대 위에 그려지면서 자아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전체 제목은 블랑쇼의 <낮의 광기>의 한 구문에서 비롯되었다. 시(텍스트)와 음악, 비디오와 무대 이미지를 신비롭게 오가는 괴벨스 특유의 비범한 연출과 나지막이 시를 읊고 노래를 하는 정중동(靜中動)의 힐리어드 앙상블의 존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수작인 이 작품은 2008년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이후 호평 속에 전세계를 투어했으며, 이번에 아시아 관객을 처음으로 만난다. 중세와 현대, 그리고 공연의 히트를 기록한 색소포니스트 안 가바레과의 <오피시움>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 힐리어드 앙상블의 성공적인 첫 음악극 외출이자, 유럽 음악극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 하이너 괴벨스의 세련된 무대미학이 집결된 <I went to the house, but did not enter>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줄 것이다.



괴벨스의 세련된 무대와 힐리어드의 정밀한 뉘앙스가 돋보이는 연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 수도 있겠지만, 그 총체적 효과는 지독히도 강력하다.
THE GUARDIAN

The Hilliard Ensemble, one of the finest vocal chamber groups in the world, appears in German composer & theatre director Heiner Goebbel's recent 'staged concert' "I went to the house but did not enter". This eccentric but profound production conceived by Goebbel is composed of three tableaux based on literary texts written by three great men of letters in the 20th century, T.S. Eliot, Maurice Blanchot and Samuel Beckett. Given its world premiere at the 2008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the production has toured all over the world to critical acclaim and waits for its Asian premiere in next March in Korea.



5

무대엔 살롱 하나, 집 한 채, 호텔방 하나가 있지만 그것이 뭔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듣게 되는 것만큼의 경험일 것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나는 좁은 의미를 담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이너 괴벨스

숨막히는 연주.
커리와 하르덴베리에르는
자신들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이상의 경지를 넘어섰다.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기교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 사이에는
그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THE SAN FRANCISCO CLASSICAL VOICE

COLIN CURRIE & HÅKAN HARDENBERGER

퍼커션과 트럼펫의 눈부신 반란
콜린 커리 & 호칸 하르덴베리에르 듀오

4.17(SUND) 7PM

현대음악계의 가장 흥미진진한 듀오, 퍼커션의 젊은 거장 콜린 커리(Colin Currie)와 트럼펫의 절대 지존 호칸 하르덴베리에르(Håkan Hardenberger)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 무대에 선다. 제임스 맥밀란(James MacMillan), 제니퍼 히그돈(Jennifer Higdon) 등 이 시대 가장 주목 받는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곡을 위촉 받으며 세계 음악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두드림의 명장, 콜린 커리.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와 더불어 마크 안소니 터니지(Mark-Anthony Turnage), 해리슨 버트위슬 경(Sir Harrison Birtwistle) 등 현대음악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레퍼토리를 탐구하는 트럼펫계의 선구자, 호칸 하르덴베리에르. 클래식뿐 아니라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커리와 하르덴베리에르는 무대의 맨 가장자리에서 오케스트라의 감초역할을 해왔던 퍼커션과 트럼펫을 매력적인 솔리스트 악기로 등극시킨 주인공이다. 다이내믹하고 비르투오적인 연주 스타일로 정평이 난 이 두 연주자는 각각 두 차례 서울시향과의 협연 무대를 가진 바 있으며 이미 국내 전문 연주자 및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퍼커션과 트럼펫이라는 특별한 조합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무대에 함께 오르는 커리와 하르덴베리에르는 이번 공연에서 전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21세기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이들에게 헌정한 곡들을 들려준다. 지금껏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클래식을 상상한다면, 무대 위에 준비한 각양각색의 퍼커션 그리고 객석을 휘감을 경이로운 트럼펫 선율을 놓치지 말자!

© Chris Dav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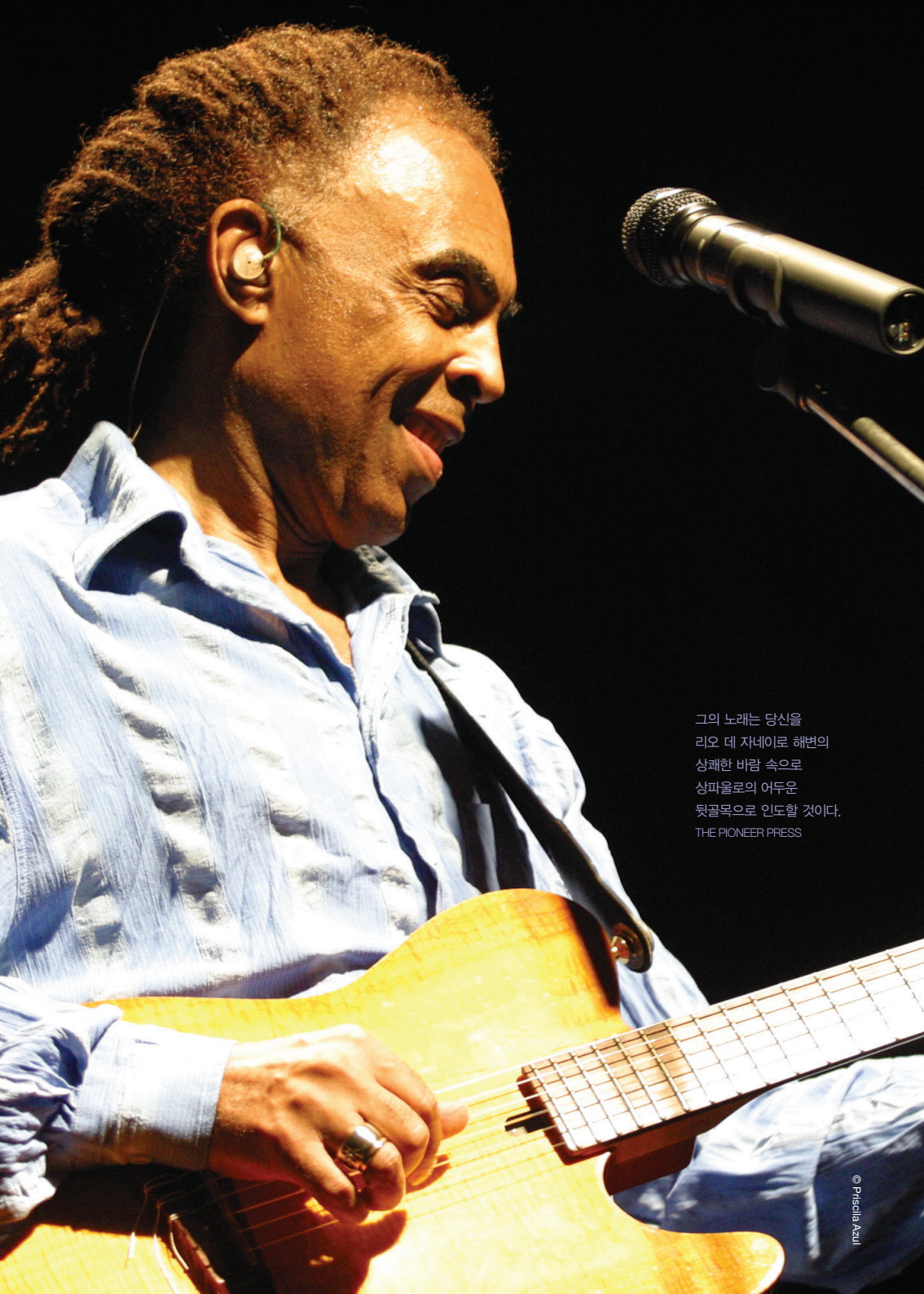
© Marco Bogreave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프로그램
조 더들 "Catch" / 루카스 리게티 "Tangle" /
루이스 안드리센 "Woodpecker" /
앙드레 졸리베 "Heptade" / 크리스티앙 무스피엘,
토비아스 브로스트롬 New duo work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시간: 2시간 / 휴식 1회 포함
Duration : 2hrs incl. an interval

A breathtaking performance! The greatest virtuosi of percussion and trumpet of our time, Colin Currie(percussion) and Håkan Hardenberger(trumpet) are coming on the stage of LG Arts Center together for the first time. They will mainly perform exciting contemporary music commissioned for this project to outstanding composers of the 21st century including new duo works. Do not miss this opportunity to meet a unique collaboration of various percussion instruments and marvelous trumpet!



그의 노래는 당신을
리오 데 자네이로 해변의
상쾌한 바람 속으로
상파울로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인도할 것이다.
THE PIONEER PRESS

© Priscilla Azuli

전세계 음악 팬들의 열렬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브라질 대중 음악의 영웅', 질베르토 질이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질베르토 질은 지난 46년간 52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7번의 그래미상 수상, 4백 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한, 명실공히 브라질을 대표하는 가수 겸 작곡가, 기타리스트이다. 강한 선율과 풍부한 멜로디 속에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주의, 과학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에 자신의 목소리를 발현해온 그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며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60년대 카에타노 벨로조와 함께 브라질의 문화 운동 '트로파칼리아'의 선봉에 섰던 질베르토 질은 군사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 국외로 추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을 음악적 자양분으로 삼아 끊임없이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며 브라질 동북부의 바이온 리듬을 출발점으로 록, 레게, 펑크, 아프리카의 아포셰 리듬 등을 혼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창조해냈다. 이번 '스팅 콘서트'에서 질베르토 질은 저명한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자키스 모렐렌바움(Jaques Morelenbaum), 그의 아들 벵 질(Bem Gil)과 함께 기타 두 대, 첼로 한 대로 그의 히트곡들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빈민가의 아들로 태어나 인종 차별, 투옥과 망명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음악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준 질베르토 질, 브라질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이 현인(賢人)의 목소리는, 당신에게 인종과 지역을 초월한 음악의 진정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GILBERTO

GIL

4.19(TUE) 8PM

THE STRING CONCERT

자유, 평화, 희망을 노래하는 브라질의 진정한 음악 영웅
질베르토 질 '스팅 콘서트'



© André Camargo

LINE-UP

질베르토 질(Gilberto Gil) – vocal, guitar
자키스 모렐렌바움(Jaques Morelenbaum) – cello
벵 질(Bem Gil) – guitar, percussion

VIP 120,000 WON
R 100,000 WON
S 80,000 WON
A 60,000 WON
B 40,000 WON

Gilberto Gil, who carries out a fundamental role in the constant modernizing process of Brazilian popular music, is coming to Seoul for the first time. Gil has established himself as the most respected and renowned singer, composer and guitar-player in Brazil for last 46 years, winning 7 Grammys and selling over 4 million records. In the upcoming concert titled 'The String Concert', Gil will play his hit numbers in acoustic version with the guitarist Bem Gil, also his son, as well as the super talented cellist and conductor Jaques Morelenbaum.



* 본 공연의 이미지는 실제 공연과 다릅니다.
The photos are for reference only.

NEW PRODUCTION BY JAE-HYUNG SEO

4.26(TUE)-5.1(SUN)
WEEKDAYS 8PM / WEEKEND 3PM & 7PM

Following a heartfelt, humanistic drama "Tournament", LG Arts Center will produce another new work by director, SEO Jae-Hyung. Pairing with playwright Han A-rum, SEO was initially renowned for their distinctive brand of image-activity theater, and won the Young Artist Awards hos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in 2009. Now in collaboration with Uzong Choe, a composer and the artistic director of Ensemble TIMF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SEO challenges to launch a new brand of music theatre, in which their magical sound and images will be displayed.

ALL SEATS 40,000 ₩ON

제작: LG아트센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 본 공연은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됩니다.



© LG Arts Center

소리와 움직임, 그 치밀하게 조직된 공감각 이미지의 향연

서재형 연출, 신개념 음악극

동아연극상 새개념 연극상(2005),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9) 등의 수상에 이어 2010년 새롭게 출범한 대학로 공연예술센터의 연극 부문 예술감독으로 임명되며 한국 연극계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연출가 서재형이 2011년 LG아트센터와 함께 또다른 신작을 선보인다. <청춘, 18대 1>, <호야, 好夜>, <죽도록 달린다> 등 여러 작품을 통해 독특한 형식미와 세련미로 이미 정평을 얻은 서재형 연출가는 LG아트센터와 함께 한 첫 번째 작품 <토너먼트>(2010, 한아름 작)를 통해 좌절과 희망을 오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흡입력 있게 펼쳐내기도 했다.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 뮤지컬, 오페라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춤과 움직임, 이미지, 소리, 음악 등의 요소를 흥미롭게 탐구해온 서재형 연출가가 그 동안 갈고 닦아온 연출역량을 쏟아부은 이번 신작은 본격적인 음악극. 국내 극음악계의 대표주자인 최우정(서울대 교수, TIMF 앙상블 예술감독) 작곡가와 손잡고 춤과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전작이나 최근에 선보였던 뮤지컬 버전의 <왕세자 실종사건>에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형식의 음악극에 도전한다. 무대와 조명을 아우르며 공간과 빛에 대해 탁월한 감각을 발휘해왔던 서재형 연출가이니만큼 운율적인 대사나 극적 요소가 배가된 음악과 같은 청각적 이미지들을 시각적 이미지 못지 않게 얼마나 매끄럽고 감각적으로 LG아트센터의 공간 속에 조직해낼지 기대를 모은다.

졸트 보그단은 존경스러울 만큼
완벽한 균형 감각을 갖고 이묘한
매력의 인물을 연기했다. 그의
연기는 최근에 공연된 <리처드
3세> 중 최고의 해석을 보여준다.
THE CLUJJEANUL

One of Romania's representative directors, Gábor Tompa and Hungarian Theatre of Cluj will make their debut appearance in Korea with "Richard III" by Shakespeare. The Duke of Gloucester, who mounted the throne of England as "Richard III" and enjoyed virtually unlimited pow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onquering death by challenging the limits of mankind. Gábor Tompa analyzes the bloodthirsty psychology of power on the horrific stage where mummies and death masks are displayed on glass shelves. Zsolt Bogdán who plays "Richard III" received rave reviews for his splendid creation of the beguiling character. A daring and unique interpretation of "Richard III" never seen before!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 공연시간: 2시간 40분 / 휴식 1회 포함
Duration: 2hrs 40mins incl. an interval

* 향기리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클루지 헝가리안 씨어터는
구조적으로, 철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연극을 선보였다.
작품의 해석은 대담하고
혁신적이며 보그단은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다.
THE BÉKÉS MEGYEI HIRLAP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루마니아의 연출가 가보 톰파가 우리 진열장 속 미이라와 살육된 머리로 둘러 싸인 차갑고 강렬한
무대 위에서 피에 굶주린 권력의 심리를 해부한다. 초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한 가보 톰파의 연출 스타일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아왔던 동유럽 연극과는 또 다른 신선한 경험을 선물할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의 백미는 리처드 3세 역을 맡은 배우 졸트
보그단(Zsolt Bogdán)의 연기이다. 잔인한 악마와 천진무구한 어린 소년이 몸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그의 연기는 소름 끼칠
만큼 생생하게 리처드 3세라는 인물의 심연까지 느끼고 이해하게 만든다. 가보 톰파는 영국 비평가협회 선정 최고 해외연극상
(<대머리 여가수>, 1993)을 비롯하여 루마니아의 저명한 연극상인 UNITER-Awards에서 최고 연출상과 최고 작품상을 수 차례
수상한 바 있는 루마니아의 대표 연출가로서 1990년부터 클루지 헝가리안 씨어터(The Hungarian Theatre of Cluj)를 이끌고 있다.
1792년, 클루지 주에서 설립되어 200년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극단은 현재는 루마니아에 속해 있으나 과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였던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며 루마니아, 헝가리 연극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프랑스 '오데옹
극장', 영국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독일 '샤우뷔네' 등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유럽
극장들로 구성된 '유럽극장연합'의 일원이 되어 그 위치를 공고히 한 바 있다. 국내에서 많이 공연되지 않는 셰익스피어의 걸작
<리처드 3세>를 루마니아의 대담하고 독특한 감성으로 만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가장 사악한 인물,
루마니아 연출가 가보 톰파의 놀라운 무대 미학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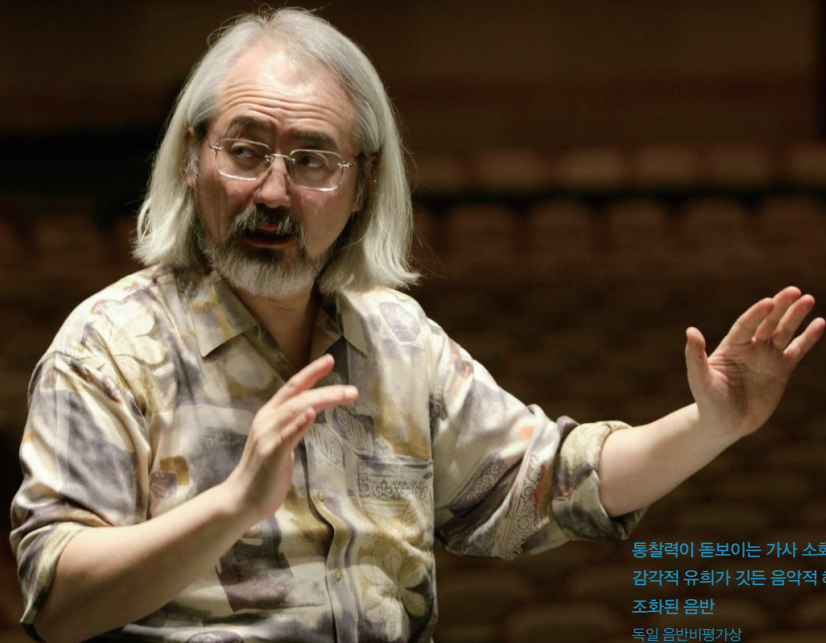
HUNGARIAN THEATRE OF CLUJ

루마니아, 가보 톰파 연출 <리처드 3세>

RICHARD III

DIRECTED BY GÁBOR TOMPA

5.26(THU)-28(SAT)
WEEKDAYS 8PM /
SAT 4PM



통찰력이 돋보이는 가사 소화 능력과
감각적 유희가 깃든 음악적 해안이
조화된 음반
독일 음반비평가상

© Marco Borggreve

MASAAKI SUZUKI LEADS

세계 고음악 무대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있는 유일한 아시아 거목인 일본의 지휘자 마사아키 스즈키(Masaaki Suzuki)가 한국의 전도유망한 고음악 단체 바흐 솔리스트엔 서울(Bachsolisten Seoul, 음악감독 박승희)을 이끌고 J. S. 바흐의 'b단조 미사'를 선보인다. 마사아키 스즈키는 자신이 1990년 창단한 바흐 콜레기움 재팬(Bach Collegium Japan)과 함께 1995년부터 BIS레이블을 통해 J. S. 바흐의 방대한 칸타타 전곡을 녹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는 지금까지 47집을 완성시키며 "바흐의 심장박동을 그대로 느끼는 지휘자"(인터내셔널 레코드 리뷰) 등의 높은 찬사를 전세계 평단으로부터 끌어내며 명실공히 '바흐 거장'으로 높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도쿄 예술대와 예일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젊고 유망한 음악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 스즈키는 2005년 바흐 솔리스트엔 서울과 처음 만난 이후 멘토를 자처하며 해마다 세미나 등을 통해 교류하면서 이 젊은 연주자들에게 지대한 음악적 영감을 주고 있다. 이에 힘입어 바흐 솔리스트엔 서울은 2005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북스테후데, 가리시미, 몬테베르디, 샤르팡티에의 곡을 의욕적으로 한국 초연하면서 역사가 짧은 국내 원전연주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미 바흐 콜레기움 재팬과의 'b단조 미사' 녹음(2007)에서 강한 영적 신념을 불어넣은 연주로 애호가들에게 진한 감동을 준 마사아키 스즈키가 처음으로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과 마음을 모아 빛어낼 J. S. 바흐 최고의 역작은 음악 이상의 감동을 전할 것이다.

R 80,000 WON
S 60,000 WON
A 40,000 WON
B 20,000 WON

프로그램
J. S. 바흐 'b단조 미사' BWV232

공동주최: 바흐 솔리스트엔 서울

BACHSOLISTEN SEOUL

J. S. BACH MASS IN B MINOR 6.5(SUN) 7PM

이 시대 바흐 거목, 미래의 거장을 이끌다
마사아키 스즈키 & 바흐 솔리스트엔 서울
J.S.바흐 'b단조 미사'

Masaaki Suzuki, one of the most respected Bach maestros, leads a young promising Korean baroque ensemble Bachsolisten Seoul(BSS) in a performance of J. S. Bach's most sublime choral work 'Mass in b minor.' Since its inception in 2005, BSS has been tremendously inspired by maestro Suzuki's musical insights and generosity, and Suzuki has spared no musical help for the BSS' artistic growth. Their fruitful collaboration for last five years will blossom in their first concert together with the Bach's masterpiece.

스즈키의 명료함과 냉철함,
영적 활력에 감동받지 않으려면
강압적인 힘이 필요할 것이다.
THE TIMES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안무: 카롤린 칼송 (Carolyn Carlson)
출연: 테로 사리넨 (Tero Saarinen)

* 공연시간: 75분 / 휴식 없음
Duration: 75mins with no interval

Carolyn Carlson's legendary solo, "Blue Lady(1983)" has touched thousands of spectators around the world with its unforgettable images. It is a fascinating gallery of female portraits spanning the space of one life – a tribute to maternity and mysterious Venice. 25 years after the work's original premiere, the solo was handed onto Tero Saarinen, the Finnish choreographer and dancer. Performed by the charismatic male dancer, "Blue Lady" [revisited] offers even more precious and radiant moments that touch the soul and remain imprinted on the heart. Saarinen's reinterpretation received standing ovations at the 2008 Lyon Dance Biennale.

파랗게 새겨지는 어느 여인의 자화상

카롤린 칼송 안무 <블루 레이디>

CAROLYN
CARLSON

BLUE LADY (REVIS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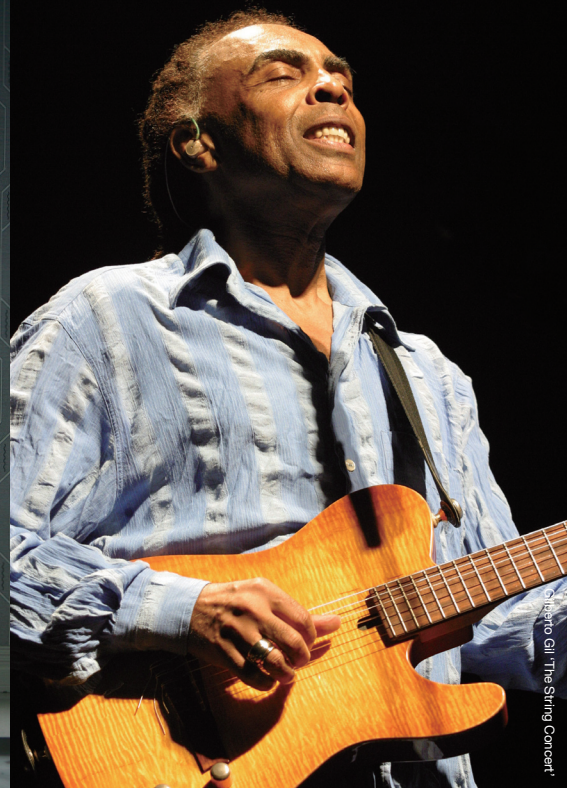
6.9(THU) - 10(FRI) 8PM

'프랑스 현대 무용의 대모'로 불리는 안무가 카롤린 칼송, 미국에서 태어나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며 매혹적인 움직임으로 최고 무용수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그녀는 이후 안무가로 변신, 일련의 신화적인 작품들을 발표해 혁명을 일으키며 현대무용의 흐름을 미국에서 유럽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200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무용부문으로는 최초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원숙한 예술세계를 인정받은 칼송이 자신의 전설적인 안무작 <블루 레이디>를 LG아트센터에서 선보인다. <블루 레이디>는 비록 솔로지만 수많은 앙상블 작품들이 나열된 칼송의 안무 리스트 중에서도 단연코 대표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 1983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초연된 이후 꿈과 열망, 감성을 어루만지는 듯한 칼송의 신비로운 솔로로 관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임팩트를 남긴 걸작이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 묵은 이 작품을 다시 꺼낸 칼송은 이에 새로운 손길을 가해 2008년 리옹 댄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여 찬사를 받음으로써 전설을 되살려냈다. 새롭게 전설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바로 핀란드 현대무용의 첨단을 대표하는 테로 사리넨(Tero Saarinen). 평소 동양 문화에 조예가 깊었던 칼송이 마치 동양의 공연양식에서 여성의 역할을 남성이 대신하는 것처럼 여성의 솔로를 남성 무용수에게 전수한 것이다. 마치 비법을 공유하는 명가의 장인들처럼 같은 핀란드계 혈통의 두 예술가, 칼송과 사리넨은 서로 비전과 철학을 나누면서 작품 안에 음(陰)과 양(陽)의 조화를 이루어냈다. 푸른 빛의 조명, 무대 아래로 드리워진 블라인드, 그리고 그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붉은 빛의 드레스... 특히 사리넨의 섬세한 표정과 강인한 몸이 그려내는 선은 마치 자웅동체(雌雄同體)의 모순된 존재를 보는 듯한 신비감마저 자아낸다. <블루 레이디>는 마치 갤러리에 전시된 어느 여인의 자화상을 보는 것처럼 여성의 '삶'과 '모성'의 이미지를 관객들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 넣을 것이다.





The Hilliard Ensemble



Alberto Gil 'The String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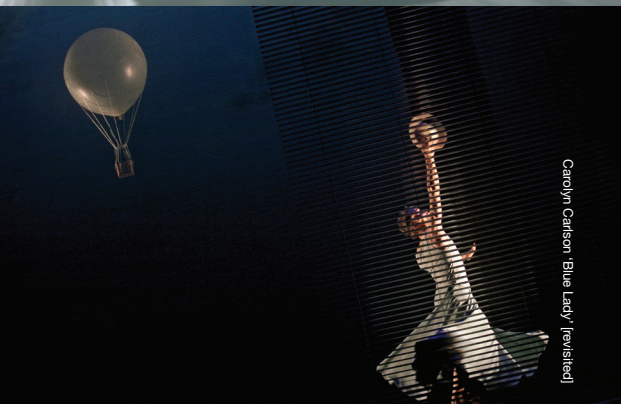
Ballet Nacional de España



Gardfjellin



Iceland Westport Theatre Acrobatic 'Faust'



Carolyn Carlson 'Blue Lady' (revisited)



LEE Jaram, Pansori Blecht 'Ukchuk-ga'

Youn Sun NAH



Hungarian Theatre of Cluj 'Richard III'



소리꾼 이자람은
공연계가 주목해 온 다크호스다.
동아일보

© Chengdong Theatre

LEE JARAM, PANSORI BRECHT UKCHUK-GA

브레히트의 역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난다!

이자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역척가〉

6.14(TUE)-15(WED),
17(FRI)-19(SUN)
WEEKDAYS 8PM /
WEEKEND 5PM

ALL SEATS 40,000 WON

제작: LG아트센터
의정부예술의전당
판소리만들기 '자'

LG Arts Center and Uijeongbu Arts Center co-produce a new work with 'Pansori' sorikkun (a singer) Lee Jaram and Pansori Project ZA. The Pansori is one of the traditional Korean theatrical forms of expression. It is mainly performed by the sorrikun who depicts all the roles of the characters in a story. To create a contemporary form of the Pansori, she draws inspiration from Brecht and his "Mother Courage and Her Children". Lee Jaram has had a huge success with her first experiment with Brecht Pansori "Sacheon-ga" and received Best Actress Award at the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 KONTAKT 2010 in Poland. Her second challenge of the Brecht Pansori "Ukchuk-ga" will be unveiled in June.

판소리 〈사천가〉, 아마도 이자람 밴드, 뮤지컬 〈서편제〉 등 다양한 장르에서 총횡무진 활약하는 소리꾼 이자람이 판소리만들기 '자'와 함께 LG아트센터와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공동기획하는 신작 무대에 오른다. 4살 때 아버지와 함께 TV에 나와 "예술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를 불러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꼬마 속녀는 어느덧 훌쩍 자라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으로 성장하였다. 12세의 나이에 판소리에 입문, 1999년에는 최연소의 나이로 장장 8시간에 걸친 〈춘향가〉 완창에 성공하여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후,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한 이자람은 2007년 창작 판소리 〈사천가〉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브레히트의 희곡 〈사천의 선인〉을 '21세기 대한민국 사천시'에 사는 뚱뚱한 처녀 순덕의 이야기로 탈바꿈시켜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외모 지상주의, 유희 지상주의, 무한경쟁을 비판하며 '현대 사회에서 착하게 사는 것의 의미'를 물었다. 〈사천가〉에서 그녀는 대본, 작창, 연기, 음악감독, 1인 4역을 맡은 바 있다. 특히, 이 작품은 판소리하면 진부하게 느끼는 젊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작품으로 이자람은 다양한 인물을 오가는 능청스런 연기와 맛깔스런 소리, 극 전체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로 관객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데 성공한다. 2010년에는 폴란드 콘탁국제연극제에 초청되어 최고 여배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한 〈사천가〉는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가 넘보는 소리꾼으로 성장한 이자람이 LG아트센터에서 선보일 작품은 〈역척가〉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브레히트의 〈역척어멈과 자식들〉을 모티브로 이자람이 두 번째로 도전하는 브레히트 작품이다. 브레히트의 역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을 역척스럽게 살아남아야 하는 현대 한국 사회로 불러내 이 시대의 우리 모두를 비춰보게 될 이 작품은, 6월 그 모습을 드러낸다.



© Doosan Art Center



잔혹하고도 아름답다.
THE GUARDIAN

© Richard Haughton

2007년 실비 갈렘과 공연했던 <신성한 괴물들>, 2009년 프랑스 여배우 줄리엣 비노슈와 공연했던 <in-i>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는 영국의 혁신적인 안무가 아크람 칸이 최신작 <버티컬 로드>로 LG아트센터 무대를 찾는다.

<버티컬 로드>는 아크람 칸이 유명 스타들과의 작업 뒤에 '순수한 춤(pure movement)'으로의 귀환을 알리며 아크람 칸 컴퍼니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인도의 전통 춤인 카타크(Kathak)과 현대 무용을 접목시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아크람 칸은 이번에는 이슬람 수피즘과 페르시아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미(Rumi)에게서 영감을 얻어 천상에서 이승으로 내려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는 인간 여정을 담대하고도ダイ나믹한 안무로 펼쳐 보인다. 2010년 영국 초연 직후, '단 한 순간도 눈을 땔 수 없는 지적이고 창조적인 작품'이란 호평을 얻기도 한 <버티컬 로드>는 특히,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모인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을 자랑하는 무용수들이 무용수 개개인의 다른 문화적 해석을 통해 매 순간 창조적인 움직임을 더한다. 영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머큐리상(Mercury Prize)을 수상한 작곡가 다티넌 쇼니(Nitin Sawhney)의 맹렬한 비트에 맞춰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 제례의식을 치르듯, 거칠고도 본능적이며, 강렬하고도 스릴 넘치게 움직이는 무용수들의 몸짓은 보는 이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본 부토 스타일의 의상과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신성한 빛'을 더하는 조명 디자인은 작품의 신비로움을 더한다.

지난 두 번의 내한 공연이 아크람 칸이란 안무가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했다면, <버티컬 로드>는 '왜 세계 공연계가 그를 주목하는지' 그만의 독특한 철학과 안무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 공연시간: 70분 / 휴식 없음
Duration : 70mins with no interval

육체의 강렬함으로 풀어내는 인간 오디세이
아크람 칸 컴퍼니
<버티컬 로드>

Akram Khan, an extraordinarily talented British choreographer / dancer, returns to Korea with his latest work "Vertical Road". He gave strong impression to Korean audiences in his previous two visits: with Sylvie Guillem in "Sacred Monster(2007)" and with Juliette Binoche in "in-i(2009)". Inspired by the universal myths of angels and the idea of 'ascension', Khan explores the road between the earthly and the spiritual, "Vertical Road". Set to the original score by Nitin Sawhney,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usicians in UK, the dance is relentless, thrilling and compelling. With Khan's superlative performers, "Vertical Road" promises to be a visually captivating and spiritually profound experience.

AKRAM KHAN

COMPANY VERTICAL ROAD

9.30(FRI)-10.1(SAT)
FRI 8PM / SAT 4PM

정교하고 스릴 넘친다.
THE OBSERVER



© Richard Haughton



마르셀 폰셀은 현재 가장 눈부시게
고색창연한 바로크 오보이스트다.
THE GRAMOPHONE

© Clem Willems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프로그램

마르첼로 오보에 협주곡 / J. S. 바흐 칸타타 BWV82 "나는 만족하나다"
BWV158 "평화가 당신과 함께" / 야니츠 오보에 4중주 g단조 /
비발디 플루트 협주곡 "밤" 등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협연: 바리톤 리이븐 테르몬트(Lieven Termont)

필립 헤레베헤, 르네 아콕스, 카위켄 가문 등 많은 바로크 음악 거장을 배출한 벨기에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바로크 앙상블인 일 가르델리노(Il Gardellino)가 처음으로 내한한다.

일 가르델리노는 거장 필립 헤레베헤가 "세계 최고의 바로크 오보이스트"라 평했으며 상젤리제 오케스트라를 함께 창단하기도 한 마르셀 폰셀(Marcel Poncelee)이 주축이 된 앙상블로 비발디의 유명한 플루트 협주곡 "일 가르델리노(붉은 방울새)"의 제목을 빌어 1988년 창단되었다. 안 더 워너, 로 테라카도 등 유럽 최고의 실력과 내공으로 인정받는 바로크 음악 스페셜리스트로 구성된 일 가르델리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짜임새 있는 앙상블과 더불어 폰셀의 고즈넉한 오보에 음색이 유유히 흐르는 연주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음반 가운데 바로크 오보에 협주곡집, 바흐 오보에 협주곡집 등 주요 오보에 레퍼토리를 수록한 음반들(Accent 레이블)은 국내 애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연주로 꼽히며 그 명성이 퍼져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등 조용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 가르델리노의 첫 내한도 그윽하고 순결한 바로크 오보에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가장 사랑받는 바로크 오보에 협주곡의 하나인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을 비롯하여 베이스 독창 위로 흐르는 오보에 오블리가토가 돋보이는 저 유명한 J.S. 바흐의 칸타타 BWV82 "나는 만족하나다", 요한 고트리프 야니츠의 g단조 4중주와 더불어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밤"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IL GARDellino

유유히 흐르는 고색창연한 오보에 일 가르델리노

10.2(SUN) 7PM



Belgian baroque ensemble, Il Gardellino, makes their first visit to Korea with the repertoire placing oboe to the front. Praised as 'the world's finest baroque oboist,' Marcel Poncelee founded Il Gardellino in 1988 with his musical colleague Jan De Winne (traverso), and the group has enjoyed recognition as one of the finest baroque ensembles in Europe. Particularly in Korea, several of their recordings featuring oboe (Accent label) are recognized as the definitive interpretation of the repertoire. You'll enjoy to the fullest the gloriously mellow sound of oboe from Il Gardellino's debut stage in Korea.

VIP 100,000 WON
 R 80,000 WON
 S 60,000 WON
 A 40,000 WON

Ballet Nacional de España (BNE : National Ballet of Spain) is the world-class company consisting of dozens of talented dancers, singers and musicians. Regarded as ambassadors of Spanish culture, the company don't do ballet, but deploy all styles of Spanish dance having flamenco at their core. Performing two of the best-loved works, BNE will enchant Korean audience with their perfect technique, physical beauty and irresistible passion.

그들의 테크닉은 완벽하고,
 그들의 육체는 달아오를 만큼 매력적이며,
 그들의 열정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다.
 THE TELEGRAPH

위대한 전통에서 혁신의 현대로 이어져온 스페인의 춤. 그 뜨거운 혼과 정열을 찬란하게 계승한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Ballet Nacional de España : BNE)이 첫 내한무대를 갖는다. 1978년 창단된 BNE는 나초 두아도(Nacho Duato)가 이끌었던 현대 무용의 Compañía Nacional de Danza와 함께 스페인 정부가 설립한 양대 국립 무용단으로, 플라멩코와 스페인의 전통 춤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통성을 자랑한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호아킨 코르테스(Joaquín Cortés)를 비롯해 안토니오 까날레스(Antonio Canales), 안토니오 마르케스(Antonio Márquez), 아이다 고메즈(Aída Gómez) 등 내로라하는 플라멩코 댄서들이 몸 담았던 BNE에는, 오늘날에도 엄청난 열정과 재능을 지닌 무용수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어 그 위상을 확고히 떠받치고 있다. 비단 춤뿐만 아니라 피카소(Picasso)의 무대미술, 마누엘 드 파야 (Manuel de Falla)와 호아킨 로드리고(Joaquín Rodrigo)의 음악 등으로 30여 년의 역사를 화려하게 장식해온 BNE는 그야말로 스페인 예술문화의 빛나는 정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수의 플라멩코 단체들이 스페인 안팎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그들 중 다수가 스타 댄서 한 명을 중심으로 단선적인 구성의 공연을 펼치는 것과 달리 BNE는 40여명에 달하는 무용수들이 저마다 탄탄한 실력과 탁월한 표현력을 기반으로 정열적인 솔로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역동적인 군무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총체적인 예술을 선보인다. 예술감독 호세 안토니오(José Antonio)는 고유의 전통에 다양하고 감각적인 현대미가 더해져 더욱 풍요로워진 스페인 춤의 자산을 마치 과시라도 하듯 자신만의 스타일리쉬한 안무와 강렬한 구성으로 자랑스럽게 펼쳐놓는다. 이들의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이고, 뜨거우면서도 절도 있는 앙상블은 다채로운 의상, 원초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라이브 음악과 더불어 관객들을 거부할 수 없는 두엔데(duende : 황홀경)의 경지로 이끌 것이다.

© Josep Aznar

전통과 현대를 관통하는 뜨거운 스페인의 정열, 이것이 진짜 플라멩코다!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BALLET NACIONAL DE ESPAÑA

10.6(THU)-9(SUN)
 WEEKDAYS 8PM / SAT 7PM / SUN 4PM

Director: José Antonio



BALLET NACIONAL DE ESPAÑA
 Director: JOSÉ ANTONIO



GOBIERNO DE ESPAÑA



MINISTERIO DE CULTURA

ALL SEATS 40,000 WON

제작: LG아트센터

바람꽃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 본 공연은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됩니다.

BARAMGOT, MUSIC THEATRE

KOKDU

10.20(THU)-22(SAT)
WEEKDAYS 8PM / SAT 4PM

2010년 10월, 세계 최대의 월드뮤직 행사인 위멕스(WOMEX) 개막공연 무대에서 우리의 음악을 세계에 알린 한국음악그룹 바람꽃. 바람꽃의 예술감독 원일은 <꽃잎>, <강원도의 힘>, <림>, <황진이> 등의 영화음악을 비롯해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우리 음악을 심어 온 멀티 아티스트이다. 바람꽃은 한국 전통 음악 양식에 기반을 두지만 전통의 보전에 머무르지 않고 진보적인 창작과 타 문화권의 악기, 연주기법과의 접목을 통하여 이 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영역을 개척한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한국 전통 예술이 총체적 연희였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극, 미술, 음악이 결합되는 음악극 창작에 천착해 왔다.

LG아트센터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바람꽃의 새로운 음악극은 상어를 장식하는 목각인형을 일컫는 '꼭두'를 소재로 하고 있다. 해학적이고 귀여운 모습의 꼭두들은 망자를 호위하고 시종하며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었다. 바람꽃은 음악, 연극, 춤을 결합하고 빛의 효과를 더해 이 꼭두들이 깨어나 인간과 소통하는 세계를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내고자 한다. 원일을 비롯한 바람꽃의 멤버들-박순아(가야금), 이아람(대금), 박우재(거문고), 박재록(시타르)-은 연주와 더불어 살아있는 '꼭두'로서 직접 신체연기도 펼쳐며, 소리와 움직임이 하나가 되고 꼭두의 물질성과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력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소리와 빛으로 깨어난 목각인형들의 세계 바람꽃의 음악극 <꼭두>

Baramgot, a group of Korean musicians specializing in traditional instruments, inherits the Korean musical tradition while innovating through the creation of contemporary music and the employment of other ethnic instruments. Now, they'll present a new production of music theatre, the group's another passion, inspired by 'Kokdu', the Korean wooden dolls which were used as decoration on the bier to keep the deceased company on the journey to the other world. A mystic story "Kokdu" combining music with theatre and dance will guide you to a new world of sound and movement.



사진제공: 꼭두박물관

ICELAND VESTURPORT THEATRE & REYKJAVIK CITY THEATRE

ACROBATIC FAUST

10.27(THU)-30(SUN)
WEEKDAYS 8PM / SAT 3PM & 7PM / SUN 4PM

Directed by
Gisli Garðarsson

아이슬란드, 기슬리 가다르손 연출
아크로바틱 <파우스트>

Icelandic Theatre troupe, Vesturport led by Gisli Garðarsson, in collaboration with the Reykjavik City Theatre returns this time with a thrilling and highly inventive acrobatic theatre, "Faust." Already in 2008, Vesturport and Garðarsson enchanted our audience with the memorable beauty of Kafka's "Metamorphosis," which had been transformed into a staged imaginative journey. Since its premiere in Reykjavik, Iceland, in January 2010, "Faust" has been a great success, recording sell-out shows with 36 performances in a row in London last October. Vesturport, this year's Europe Prize New Theatrical Realities' winner, has reinvented the classical epic of "Faust" as a dazzling and dynamic circus-inspired theatre. Its universal tale will immerse you in a unique and innovative theatrical experience that you may have never had before.

ALL SEATS 55,000 WON

* 공연시간: 2시간 / 휴식 1회 포함
Duration: 2hrs incl. an interval
*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Written by
Gisli Garðarsson,
Nina Dógg Filippusdóttir,
Björn Hlynur Haraldsson,
Vikinger Kristjánsson
and Carl Gröse

Music by
Nick Cave and Warren Ellis

놀라움에 숨이 턱 막힌다.
최면에 걸린 듯한
연극적 체험!
THE CURTAIN UP

2008년 내한 시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뛰어난 무대적 상상력과 세련된 연기로 표현하며 3회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아이슬란드의 연출가 기슬리 가다르손과 베스투르포트 극단이 이번에는 괴테의 <파우스트>로 돌아온다. 2009년 아이슬란드 초연의 대 히트 이후, 런던 영빅 극장에서 36일간의 공연을 전석 매진시킨 이 작품은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를 한 인간이 악마의 유혹에 빠져 영혼을 판다는 기본 스토리 골격만 유지한 채 서커스적 요소를 가미한 연출가 자신의 버전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연출가 기슬리 가다르손은 파우스트가 만나는 초현실적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연기 공간을 무대뿐 아니라 관객의 머리 위로까지 확장한다. 객석 1층 전체에 커다란 그물이 덮이고 배우들은 관객들의 머리 위를 뛰어다니며 파우스트가 만나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극장 공간 전체에 펼쳐 보인다. 국가대표 체조 선수에서 연극 연출가인 동시에 배우로, 그리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페르시아의 왕자> 출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기슬리 가다르손은 2011년에는 영국의 가장 명망 있는 극단으로 일컬어지는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연출가로도 데뷔할 예정이다. 그가 이끄는 베스투르포트 극단은 올해 창단 10년 만에 유럽 최고 권위의 연극상인 유럽 연극상의 뉴리얼리티(Europe Prize New Theatrical Realities)부문을 수상하며, 세계 유수의 연극 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로미오와 줄리엣>, <보이체>, <변신>, <파우스트>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판에 박힌 연극을 거부하며, 언제나 관객들의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길 원하는 연극계의 양광 테리를 기슬리 가다르손, 그가 만들어내는 무어와 그로테스크한 매력 넘치는 즐거운 파우스트를 통해 새로운 연극적 감성을 만나보자.

© Erlmur Bjarnason



코렐리의 콘체르토 그로소
피날레에서 점차 끌어오르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에너지는 관객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THE GUARDIAN

© EMI

2004년과 2008년 두 번의 내한공연에서 모두 전석 매진이라는 기염을 토했던 파비오 비온디(Fabio Biondi)가 이끄는 인기 바로크 앙상블인 에우로파 갈란테(Europa Galante)가 이번에는 이 시대 대표적인 테너의 한 명인 이안 보스트리지(Ian Bostridge)와 세 번째로 국내팬을 찾아온다.

에우로파 갈란테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것은 혁신적인 이들의 비발디 <사계> 연주였지만,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바로크 오페라를 발굴하여 연주하는 데에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앙상블로도 유명하다. 이번 내한공연에서 보스트리지가 부르는 18세기 바로크 테너를 위한 아리아들 역시 비온디가 아니발레 파브리(Annibale Fabri)에 대해 보스트리지에게 알려주면서 시작된 영감의 결과물이다. 옥스포드대 역사학 박사 출신으로도 유명한 보스트리지는 18세기 오페라의 무게중심을 카스트라토에서 테너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쓰리 슈퍼스타 바로크 테너'인 보로지니(F. Borosini), 파브리(A. Fabri), 비어드(J. Beard)를 파고들어 헨델, 비발디, 스카를라티 등이 이들을 위해 작곡한 아리아를 선보인다.

지금까지의 내한에서 볼 수 없었던 1인 3색의 보스트리지와 더불어 에우로파 갈란테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다이내믹하고 강렬한 개성이 그대로 드러날 코렐리, 비발디, 텔레만 등의 기악곡은 바로크 음악 팬이라면 결코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안 보스트리지는 자신의 가장 생생하고 깊은 표현력으로 그리고 가장 섬세한 장식으로 바로크 쓰리 테너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THE OBSERVER

EUROPA GALANTE & IAN BOSTRIDGE

에우로파 갈란테 & 이안 보스트리지

11.4(FRI) 8PM

- R 90,000 WON
- S 70,000 WON
- A 50,000 WON
- B 30,000 WON

프로그램

칼다라, 비발디, 헨델, 스카를라티의 오페라 및 오라토리오 아리아 / 코렐리 콘체르토 그로소 Op.6 No.4 / 헨델 오페라 <로드리고> 모음곡 등

* 공연시간: 2시간 / 휴식 1회 포함
Duration: 2hrs incl. an interval

Celebrated Italian baroque ensemble Europa Galante led by baroque violin virtuoso Fabio Biondi returns with British tenor Ian Bostridge. They'll bring a fascinating program exploring three superstar tenors in the 18th century who dominated European opera scenes; Borosini, Fabri, and Beard. And the arias dedicated to these great singers will be coupled with other exciting instrumental overtures and suites to be performed by Europa Galante alone.



© Eric Manias

2007년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연주, 2009년 슈베르트 실내악 프로젝트로 호평을 받으며 두 번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이 이번에는 2009년 공연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던 올리비에 샤를리에(Olivier Charlier/바이올린), 엠마누엘 슈트로세(Emmanuel Strosser/피아노)와 함께 '트리오 오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첫 발을 내딛는다.

'트리오 오원'의 세 연주자는 영화 '취화선(2002)'에서 그려진 조선 말기 천재 화가 장승업(1843~1897)의 예술세계에 감명을 받아 그의 호(號)인 '오원'을 차용하여 트리오 이름을 붙였다. 이번 공연은 '트리오 오원'으로서의 첫 공식 데뷔무대로, 19세기 독일 낭만주의의 3대 작곡가인 멘델스존, 슈만 그리고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로 꾸며질 예정이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에서 이른바 '신고전주의'를 형성한 멘델스존, 슈만 그리고 브람스는 바그너로 대표되는 '신독일악파'와의 대립 속에서 전통에 바탕을 둔 절제된 낭만주의를 추구하며 서로의 음악을 존경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의지했던 끈끈한 음악적 동지이자 선후배였다. 특히, 피아노가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 19세기 실내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들의 피아노 트리오에는 작곡된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작곡법, 조성 등에서 긴밀한 음악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연관성이 깊다.

독일 낭만주의 세 거장의 음악으로 의욕적인 출발을 알리는 '트리오 오원'의 첫 무대. 그들이 연주하는 주옥 같은 피아노 트리오는 깊은 가을밤 독일 실내악의 정수를 들려줄 것이다.

양성원의 트리오 오원

TRIO OWON

11.6(SUN) 6PM



© Eric Manias

- R 60,000 WON
- S 50,000 WON
- A 30,000 WON

프로그램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제1번 / 슈만 피아노 트리오 제2번 / 브람스 피아노 트리오 1번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연시간: 2시간 / 휴식 1회 포함
 Duration: 2hrs incl. an interval

Having made consecutive sold-out performances with the Beethoven and the Schubert projects, cellist Sung-Won Yang has formed a new piano trio named 'Trio Owon' with his long-time colleagues Olivier Charlier(violin) and Emmanuel Strosser(piano). In their ambitious first concert as Trio Owon, they will present the most important and beloved piano trio pieces by Mendelssohn, Schumann and Brahms who were the symbolic figures of German Romanticism of the 19th century.



ANTONY &

세계 무대에 진출한 일본 연극의 저력, 거장의 뜨거운 예술혼과 깊은 연륜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팍 찬 무대가 찾아온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의 연출가, 니나가와 유키오(蜷川幸雄, 1935 ~). 5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송두리째 연극에 바쳐온 그는, 희수(喜壽)에 가까운 나이에도 연극, 영화를 넘나들며 젊은 후진들을 제치고 현역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출가이다.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영국,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해, 1999년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영국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SC)에서 <리어왕>을 연출했던 그는, 이후 <페리클레스>, <햄릿>, <타이투스 앤드러니커스>, <코리올레이너스> 등을 연달아 선보이며 언어를 넘어선 탁월한 극적 해석, 일본의 전통적 요소를 이채롭게 버무려낸 특유의 미학적인 비주얼로 세계의 관객들을 매혹시켜 왔다. 특히 영국인의 문화적 자존심과도 같은 셰익스피어에 있어서는 2002년 영국 여왕이 수여한 대영제국 커맨드 훈장(CBE)이 입증하듯 본고장이 공인한 거장이라 할 수 있겠다. 영국의 RSC, 바비칸, 내셔널 시어터, 에든버러 페스티벌, 미국의 케네디 센터와 링컨 센터 등 일본을 넘어 세계를 누비며 관객들과 교감을 나눴은 이 노장 예술가가 이제 셰익스피어의 비극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들고 이웃나라 한국의 관객들을 찾아온다. 니나가와의 오랜 숙원이자, 한국의 관객들 역시 고대해온 이번 최초의 내한공연에서는 명성을 떨친 전작 <타이투스...>, <오델로> 등에서 주역을 맡았던 명배우 요시다 고타로가 안토니 역을, 재일한국인 3세로 일본의 여성가극단 다카라즈카에서 빼어난 연기과 가창력으로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닌 여스타 아란 게이가 클레오파트라 역으로 출연해 비극적인 사랑과 정치적 대립의 드라마를 원숙하고도 장엄하게 펼쳐낼 예정이다.

SHAKESPEARE'S CLEOPATRA

DIRECTED BY YUKIO NINAGAWA

11.24(THU)-27(SUN)
WEEKDAYS 7:30PM /
SAT 1:30PM & 7:30PM /
SUN 3PM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인정한 셰익스피어 거장의 연륜 있는 무대

일본,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 / 셰익스피어 작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The celebrated Japanese director, Yukio Ninagawa will make his first visit to Korea. Presenting "King Lear" in 1999, Ninagawa became the first foreign director who collaborated with the the Royal Shakespeare Company(RSC), and since then, his productions have enjoyed surprising success in the West as well as in Japan. Starring the veteran Japanese actor, Kohtaloh Yoshida as Antony, and the former Takarazuka Revue star, Aran Kei as Cleopatra, Ninagawa's "Antony and Cleopatra" will show his mastery of Shakespeare's romantic tragedy adopting new perspectives and highly visual approaches.

제작: 일본 호리프로
Produced by HoriPro Inc.

*일본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LG아트센터 회원이 되십시오!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LG아트센터가 엄선한 세계의 다양한 공연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연회비가 없고, 본 만큼 혜택을 돌려받는 합리적인 회원제도!



- 전화, 방문 또는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예매하실 수 있으며, 예매수수료가 없습니다.
- LG아트센터의 공연 정보를 우편 또는 E-mail로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 사전 예매한 공연 내역은 관람 2~3일 전에 확인 E-mail을 보내드립니다.

- 기획공연 입장권 구매 시 구입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10% 이상 할인 구매 시 적립불가)
- 아트포인트는 티켓 할인, 주차권 및 프로그램 교환 등 원하시는 서비스와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lgart.com에서 확인하십시오.
- LG아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005-0114)로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하차 후 7번 출구 방향으로 오시면 GS타워 지하 1층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 1층에서 LG아트센터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버스

146, 147, 360, 730
역삼역 정류장 하차

주차

자가 차량 이용 시, 주차는 GS타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연을 보신 분에 한해 LG아트센터 메인 로비의 정산소에서 할인된 금액(4시간 3,0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esign 2x2/Shin Bum Shik

제휴 레스토랑 할인 안내



LG아트센터 당일 입장권 또는 예매확인서를 소지하시고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타 쿠폰 및 할인 카드와 중복 사용 불가)

KOREAN



사랑채(한식당)

02-2005-1005~6 * GS타워 지하 1층
중식 11:30~14:30
석식 17:30~22:00 (일요일 휴무)
식사 금액 10% 할인

BUFFET / BEER



더 옥스(스테이크 & 씨푸드 뷔페)

02-518-8803
* 학동역 6번 출구 삼익빌딩 7, 8층
평일 11:30~15:00, 18:00~22:30
주말 11:30~16:30, 17:30~22:30
일주일 이내 티켓 제시 시
식사 금액 10% 할인

실크 스파이스(오리엔탈 푸드)

02-2005-1007~8 * GS타워 지하 1층
중식 11:30~14:30
석식 18:00~22:00
식사 금액 10% 할인

헌터스 티번(뷔페 & 펍)

02-2005-0700 * GS타워 지하 1층
평일 11:30~14:30, 18:00~23:00
주말 11:30~14:30, 18:00~22:00
생맥주 500cc 제공(주중),
뷔페 10% 할인(주말)

ASIAN



강가(인도식 커리)

02-2005-0610 * GS타워 지하 1층
중식 11:30~15:30
석식 17:30~22:00
세트메뉴 10% 할인
(티켓 1매 당 1세트)

아리산(중식당)

02-538-9205
* 역삼역 2, 3번 출구 GFC 후문 앞
11:00~22:00
1개월 이내 티켓 제시 시
평일 10%, 주말 20% 할인

케이세이 호(중식당)

02-2005-1003~4 * GS타워 지하 1층
중식 11:30~14:30
석식 18:00~22:00
식사 금액 10% 할인

포메인(베트남 쌀국수)

02-2005-0620 * GS타워 지하 1층
평일 11:00~21:30
주말 11:00~21:00
쉬림프 롤 제공(테이블 당 1개)

ITALIAN



메파루니(이탈리안 비스트로)

02-2005-1001~2 * GS타워 지하 1층
주중 08:00~22:00
주말 09:00~22:00
식사 금액 10% 할인

보나베띠 역삼점

(이탈리안 레스토랑 & 와인 바)

02-569-8253 * GS타워 정문 맞은편 3층
11:30~24:00 (일요일 휴무)
일주일 이내 티켓 제시 시
평일 10%, 토요일 20% 할인

지아니스 나폴리

(이탈리안 비스트로 / 화덕 피자)

02-566-0501 * GS타워 정문 맞은편 2층
11:00~23:00
지아니스 시저샐러드 제공



LINE-UP

LAVAZZA ESPRESSO CAPSULE



TIERRA

레몬, 오렌지의 상쾌한 향이 풍성하고 섬세하게 아로마를 형성하여 여성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입니다. 라바자에서 독점적으로 온두라스, 페루, 콜롬비아 등의 지역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커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ROMA CLUB

한 다발의 향기로운 부케 같은 커피로 잘 숙성된 와인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100% 고급 아라비카로 구성되어 높은 밀도감과 지속적인 아로마가 소녀를 연상케 합니다.



DEK

부드러운 마우스 필링이 매력적인 디카페인 커피 DEK는 남아메리카산 아라비카 100%로 만들어 다양한 곡물과 토스트 향이 인상적입니다. 카페인이 민감하신 분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CREMA & AROMA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커피인 Crema & Aroma는 고소한 곡물향과 달콤한 초콜릿 향기가 특징적입니다. 입안을 가득 채워 주는 풍만한 밀도감과 크레마가 주는 달콤함 그리고 상쾌한 촉감이 오래도록 입안을 땁니다.



AROMA POINT

중앙 아메리카산 아라비카와 인도네시아의 고급 로부스타가 정교하게 구성되어 매끈한 바디감과 황금빛 크레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운 곡물향과 코코아 향이 부드럽게 허끝을 재워줍니다.

EP-950

LAVAZZA ESPRESSO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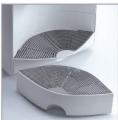
원버튼 추출 시스템

버튼 하나로 추출부터 상대확인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편한 조작 시스템

별다른 기술이 필요없이 캡슐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추출 준비가 완료됩니다.



맞춤형 컵받이

컵의 높낮이에 따라 조절을 할 수 있는 컵받이는 작은잔이나 큰잔의 사용이 모두 용이합니다.



대용량 물탱크

1.7L 대용량 물탱크는 한번 급수로 40잔 커피 추출이 가능합니다.

쇼핑몰: www.lavazzacapsule.net
 이메일: lavacapsule@gmail.com
 핸드폰: 010-3252-7021
 사무실: 070-8825-7022

라바자캡슐 대표 이장욱
 (무료 시음이 가능합니다)



COFFEE

커피의 좋은점

커피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 **간암, 자궁암, 피부암, 뇌암, 대장암 예방**
 지난 13일 일산 킷엑스에서는 커피의 건강 기능성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산임식식품공학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커피의 효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소개됐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이노우에 박사는 "커피 섭취와 암의 상관성에 관한 여러 연구를 검토해볼 때, 커피가 간암 및 자궁암 예방을 돕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뇌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도 소개됐다. 이장준 한국과학기술원 박사에 따르면 뇌암에 걸린 쥐에게 매일 1mg의 카페인을 물 1ml에 섞어 한 달가량 먹인 결과, 뇌암 세포의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카페인을 섞지 않은 물 1ml만 먹인 쥐에 비해 생존율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래 섭취하면 당뇨, 파킨슨병, 치매 예방까지**
 이창훈 코벨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1988년에서 1998년까지 하버드대 윌터 윌렛 박사팀이 12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기간 커피를 복용할 경우 2형 당뇨병의 위험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매일 커피 1잔을 마실 때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7%씩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적당한 커피를 마실 경우 치매 발생률 또한 낮출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기원 한국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하루 3~5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65~70%, 알츠하이머 발생률은 62~64%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 **설량 줄이고 가급적 블랙커피 마셔야**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커피에 숨겨진 설탕이 이치껏 많다고 해도 적당한 양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식습관, 소화능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커피가 주는 영향은 제각각일 수 있어 커피의 적정 섭취량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힘들다. 전문가들은 만약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루 3~4잔 정도 섭취함으로써 커피가 주는 효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설탕과 크림이 함유된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장준 박사는 "일반 커피에는 설탕, 크림 등 몸에 해로운 성분도 많이 들어 있는 만큼 되도록 블랙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커피를 마실 경우 골다공증이 오거나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허약 체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0. 05. 18 이성이 MK헬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memo.



March

안젤리크 키드조
Angelique Kidjo
3.13(Sun) 6pm
R 70,000 / S 50,000 / A 30,000

나윤선
Youn Sun NAH
3.23(Wed) 8pm
R 70,000 / S 50,000 / A 30,000

힐리어드 앙상블 / 하이너 괴벨스 작곡, 연출
<I went to the house, but did not enter>
The Hilliard Ensemble
Composed & directed by Heiner Goebbels
3.26(Sat)-27(Sun) 7pm
R 90,000 / S 70,000 / A 50,000 / B 30,000

April

콜린 커리 & 호칸 하르덴베리에르
듀오
Colin Currie & Håkan Hardenberger
4.17(Sun) 7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질베르토 질 '스트링 콘서트'
Gilberto Gil 'The String Concert'
4.19(Tue) 8pm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서재형 연출, 신개념 음악극
New Production by SEO Jae-Hyung
4.26(Tue)-5.1(Sun)
Weekdays 8pm /
Weekend 3pm & 7pm
All seats 40,000

May

가보 톨파 연출 <리처드 3세>
Hungarian Theatre of Cluj
'Richard III'
Directed by Gábor Tompa
5.26(Thu)-28(Sat)
Weekdays 8pm / Sat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June

마사아키 스즈키 &
바흐 솔리스트엔 서울
Masaaki Suzuki leads
Bachsolisten Seoul
J. S. Bach 'Mass in b minor'
6.5(Sun) 7pm
R 80,000 / S 60,000 / A 40,000 /
B 20,000

카롤린 칼송 안무 <블루 레이디>
Carolyn Carlson
'Blue Lady' [revisited]
6.9(Thu)-10(Fri) 8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이지람의 판소리 브레히트
<억척가>
LEE Jaram, Pansori Brecht
'Ukchuk-ga'
6.14(Tue)-15(Wed), 17(Fri)-19(Sun)
Weekdays 8pm / Weekend 5pm
All seats 40,000

September

아크람 칸 컴퍼니
<버티컬 로드>
Akram Khan Company
'Vertical Road'
9.30(Fri)-10.1(Sat)
Fri 8pm / Sat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October

일 가르델리노
Il Gardellino
10.2(Sun) 7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
Ballet Nacional de España
10.6(Thu)-9(Sun)
Weekdays 8pm / Sat 7pm /
Sun 4pm
VIP 100,000 / R 80,000 /
S 60,000 / A 40,000

바람꽃의 음악극 <꼭두>
Baramgot, Music Theatre 'Kokdu'
10.20(Thu)-22(Sat)
Weekdays 8pm / Sat 4pm
All seats 40,000

가슬리 가다르손 연출
아크로바틱 <파우스트>
Iceland Vesturport Theatre
Acrobatic 'Faust'
Directed by Gisli Garðarsson
10.27(Thu)-30(Sun)
Weekdays 8pm / Sat 3pm & 7pm
/ Sun 4pm
All seats 55,000

November

에우로파 갈란테 &
이안 보스트리지
Europa Galante &
Ian Bostridge
11.4(Fri) 8pm
R 90,000 / S 70,000 / A 50,000 /
B 30,000

양성원의 트리오 오원
Trio Owon
11.6(Sun) 6pm
R 60,000 / S 50,000 / A 30,000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 / 셰익스피어 작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
Directed by Yukio Ninagawa
11.24(Thu)-27(Sun)
Weekdays 7:30pm / Sat 1:30pm & 7:30pm /
Sun 3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CoMPAS11의
동영상과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